

# 주요 정책의 쟁점

(1997. 6. 22~7. 20)

일자	정책	주된 내용	수긍 의견	보완 의견
6.22	금융 개혁 세부 추진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증권사 위탁 수수료 자율화</li> <li>• 기업연금보험제 내년 실시</li> <li>• 부동산 관련 채권 실명화</li> <li>• 은행의 금융채 발행 7월 허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융 산업의 경쟁체제로의 전환</li> <li>• 증권 산업의 종합금융업의 성장 기반 마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금자 보호 장치 마련 필요</li> <li>• 자율적인 인사와 경영 필요</li> </ul>
6.26	1998년 예산 요구 현황 및 편성 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998년 예산 올해보다 7% 증가</li> <li>• 한 76조 4,000억 원 편성 방침</li> <li>• 단기 국채 발행은 자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 긴축 재정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긴축 재정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</li> <li>• 내년 경제 회복 국면 반영 미흡</li> </ul>
6.28	4차 경제 규제 개혁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환경, 교통, 인구, 재해, 경관 영향 평가 내년부터 통합 운영</li> <li>• 정부 부문 경쟁 입찰시 입찰보증금제 1998년부터 폐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장이나 택지 개발 수월</li> <li>• 기업의 부담 경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련 부처 및 단체의 이기주의 대두 우려</li> </ul>
7.1	기업 재무 구조 개선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채 상환용 부동산 매각 양도세 전액 면제</li> <li>• 30대 기업 계열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2000년 이후 금지</li> <li>• 증자 요건 1999년 폐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한 차입 경영 해소 방안</li> <li>• 구조 조정 촉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탈세 수단으로 악용 우려</li> </ul>
7.4	제4단계 금리 자유화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, 2금융권의 수시 입출식 예금 금리 자유화</li> <li>• 단기 금융 상품의 최저 금액 제한과 기간 폐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본격적인 경쟁금리시대의 개막으로 소비자금융시대 개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신 금리의 인상으로 여신 금리 상승 우려</li> </ul>
7.10	금융 개혁 2차 추진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증권사 신규 설립 허용</li> <li>• 국민·외환·주택·기업은행의 정부 지분 매각에 의한 완전 민영화로 대형화 유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증권사의 경쟁체제 전환 가속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증권사 난립으로 인한 출혈 경쟁 우려</li> </ul>
7.18	기업퇴출 제도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M&amp;A 활성화, 고용 조정 촉진</li> <li>• 소유·경영 분리 지주회사 허용</li> <li>• 사당 산업 정리 촉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 구조 조정 용이</li> <li>• 선단식 경영에 대한 경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영역 확대 우려</li> <li>• 고용 불안 심리 자극</li> </ul>